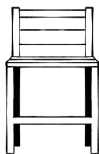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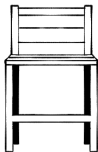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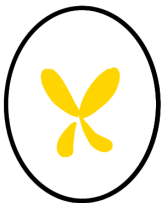
소녀여[✧]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본 이야기의 인물은 가상인물이지만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담았으며,
가상인물이 대신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임을
알립니다.※



등장인물



할머니



이야기꾼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아무도 없고,

이 방은 뭘 방인지도 모르니 원...
뭐, 기다리다 보면 빨리 오겠지.. 참.



이곳은 당신.
아니, 그대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안심하세요.
이야기가 끝나면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 진짜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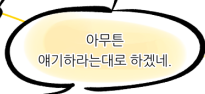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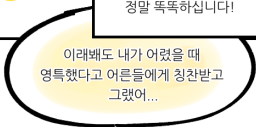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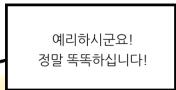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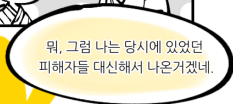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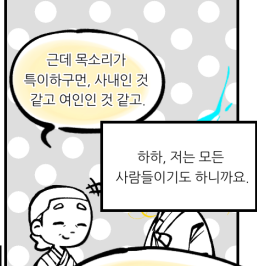
거짓말같은데..
생긴 걸 보면..

소상...

하하...;
안전귀가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저 '이야기꾼'이
이곳에서 한 치의
거짓도 없이 당신께
맹세합니다.





#1. 당시에 있었던 일

다시 떠오르면 여전히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

나락

눈을 감으면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무서워.

'그때의 일'이란게
무엇입니까?

무서운 일이지.
놀다가 군인들에게 영문도 모른채
잡혀가지고 모르는 곳에 끌려갔거든.

그리고 나서.. 내 몸을 막
다루는거야.
많으면 열 번 넘고 적으면
여섯 정도..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고 어디 가둬서
머칠 굶게 했어.

고분고분해져야 비로소
꺼내주고 그랬지.



그리고 다시 해.
응... 다시.

...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군요.



그래 맞아.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지.

우리를 짐승마냥...
짐짝처럼 아니, 벌레만도
못하게 대했어.

몸도 마음도 막
다루는 놈들이지.

...너무 무리하신게 아닐까
걱정되는군요. 쉬다가 할까요?



아녀, 계속 합시다.

말해야할게
산더미이니.



보자.. 그때는 여자들 중에 조선인도
있었고,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있었지.
찾아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처지인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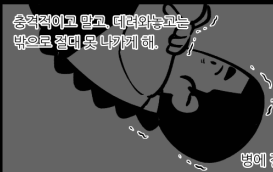
아주 다양하게 데려왔더군.
어린이나 자매도 있고, 학생,
결혼한 여자도.. 심지어 애 엄마도.

다양하게 데려온 만큼
장소도 참으로 다양했어.



정말
충격적이군요.

충격적이고 말고, 데려와놓고는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해.



병에 걸리면 어디 모아서 죽이고..
도망치다가 발견되면 죽고.

고향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무서운 눈으로 쳐다 봐. 마씨
귀신 볼 것 마냥.



심지어 내 가족도...
...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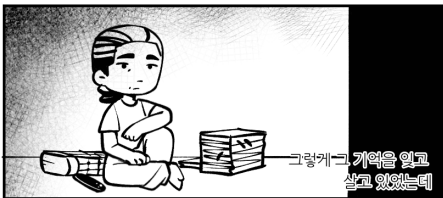
그곳에 있어도
고향으로
돌아와도 많이
힘드셨겠군요.

그래... 그렇지.

정말 많이.



#2. 과거와 현재



◆ 1997년 7월, 김학순 할머니의 자택에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다.

근데.. 보다 보니까 자주 생각나더라.
잊혀지질 않았거든.

그래서 나도 했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알아준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서
도와주었지.

근데... 고마운 사람들이
많은 만큼 못된 사람들도
슬금슬금 나오더라고.

군인놈들이나 그 나라
정부 사람들이 도통
사과를 안 하더라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는 오히려
거짓말만 하고
얼마나 아이가
없었는지.

아휴.. 재네는 화가
나기라도 하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거여..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들이 뭘 아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렇게 산 증인들이
있는데 말이야.

지금도... 수 많은 여자들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
완전히 그때가 생각나서...



짐승보다.. 어쩌면 벌레.. 아니
점마냥 다루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

난 중립. 확실하건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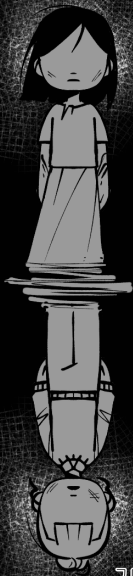
○○○

개과. 잘못된 생각



다양한 여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당하거나
죽는데도.. 아길 가볍게
보는 눈들이 있어. 지금도.

그렇게 죽고 나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망해지고...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



그 때와 지금이 많이 달라진게
있거나 할까. 과연 그런 놈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할까.



#3. 바라는 것

혹여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술술 나오려는
참인데.

그럼 잠시
쉬고 이어서
해볼까요?

예구.. 그러지 뭐.

잠시 쉬어갑니다!

10분 후...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 stylized illustration featuring a man and a woman. The man, on the left, is bald and wearing a white shirt with a dark collar, shown in profile with his hand near his face. The woman, on the right, has long dark hair in a braid and is wearing a white top with a dark skirt, shown from the back. A large, bright yellow flower with five petals is positioned in the center, partially obscuring both figures. The background consists of a yellow field of small dots. Two speech bubbles are present: one above the man and one below the woman.

내가 바라는거라...
있다면 세상의...

변화

...이지.
'변화'.



'변화'라...



사과나 법적인 보상이 아닌
'변화'를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과와 배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리
피해자들 눈 앞에서
직접.

세상이 이런
진실을 다 알아야
생각을 바꿀테고



알아보려고
찾아볼테지.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고서 비판이
못된 놈들에게
향할테지.



저것들이 죄인인데 가끔
나 스스로가 죄인같다는
생각도 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상하죠? 피해자인
제가 왜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하죠?

언제까지 잘못된
놈들말고 피해를 받고
죽은 사람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계속 말씀하실건가요?

그래서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이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전.

그렇군요. 그럼...

소녀여,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야



저는...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세상이
오기에는 너무 먼
얘기겠죠...



그냥 이런 상처를
문어둔 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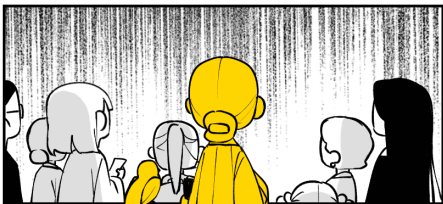
나의 때워진 청춘과 삶,
그리고 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냥 쉬쉬하고
조용히 죽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럼 누가 우리가 겪은 이 아픈 진실과
사실을 알아줄까요?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도 말아.

작은 힘이 점차 큰 힘이 되어서
세상이 다시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해 맞서 싸울테니까.

기억하는 사람들과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힘을 합쳐야
세상은 옳은 길로
변화할 거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아픈 진실을 통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쳐나가겠지.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하고.



정말 뜻깊은
말씀이십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고맙지.
덕분에 이런 시간도
가져보고 하고 싶은 말도
해봤으니 말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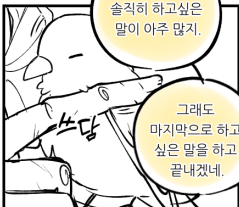
#4. 마지막 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이 아주 많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끝내겠네.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싸우고 있어요.

여전히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
또한 많지요. 떳떳하게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전하고 싶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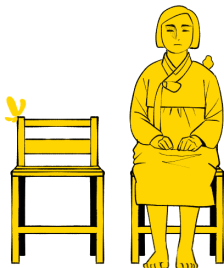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아
너희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더 이상 상처받은
이들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그리고 세상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

그럼 안녕.



마침

후기

이번 『소녀여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만화를 그리게 된 손원주입니다.
위안부 공모전을 보고 공모전에 대한 도전심도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이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할머니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관련된 그림책과 영상을 통해 보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관심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 만화를 그리기 위해 이용수
할머니 영상과 다른 나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며
내용을 작성하고 가상인물을 이용수 할머니를 모티브로 삼고 만화를
그렸습니다.

주제가 '할머니의 용기에서 평화의 발걸음'이기에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동시에 현재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탕으로 같이 넣어봤습니다.
물론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이면서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현재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떠올랐기에 이런 점들을 연결시키며
조심스레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맞서 싸우시는 피해자 할머니들과 모든
여성분들을 늘 응원하고 지지하며, 좋은 결과를 들으시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폰트: 연전고육시민체 / NanumGothic 등
- 참고한 영상: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 |
시대의 초상 - 위안부와 학자대라 (2007.06.12) / 일본군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증언하는 아시아 생존자들(KBS 20130808 방송)

